

‘독거노인에게 희망더하기’ 주거개선

고창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복원주거개선사업단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거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고창지역 65세이상 노인 단독세대 중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7-8월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독거노인 100가구에 도배, 장판, 보일러, 수도시설 등을 정비해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번 ‘복원주거개선사업’은 노인이 노인을 위한 지역의 ‘노-노 케어’의 장을 마련해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첫 혜택을 받은 김영애(71) 할머니는 “하루 종일 고생하며 일한 분들에게 어떻게 감사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업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업을 주관한 무공 스님은 “올해 주거개선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노인주거개선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주거개선사업 참여노인과 수혜노인 삶의 만족도가 함께 올라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밥차는 자비 신키”

광주 자비신행회 ‘자비의 밥차’ 운행 시작



8월 14일부터 광주 자비신행회 ‘자비의 밥차’는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무료공양 서비스를 시작했다.

맛있는 건강식을 가득 실은 ‘자비의 밥차’가 광주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점심 대접에 나서 눈길을 끈다. 무료급식소까지 찾아가야 먹을 수 있던 점심을 마을 노인회관까지 찾아와 대접하니 지역 어르신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빛고를 광주의 대표적 신행단체인 사단법인 자비신행회는 8월 14일 광주시 외곽 용연마을을 시작으로 매일 1-2회씩 무료급식 차량을 이용한 어르신들 점심공양에 나섰다. 5월 7000만원 예산을 들여 구입한 밥차를 이용해 수차례 시범행사 후 본격적인 무료공양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점심공양 서비스를 시작한 14일, 광주광역시 용연동 마을회관 앞에는 마을과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 100여명이 모여 분주했다.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시식하느라 기쁜 모습이었다.

공양에 참여한 박말려(71) 할머니는 “불교단체에서 무료로 갖다 주는 음식은 처음 먹어 본다. 음식이 정말 맛나고 좋다”며 감사표현을 했다.

특히 자비신행회와 인근지역 법림사(주지 무진)가 함께 마련한 행사는 신행단체와 지역사찰이 연계한 밀착형 지역서비스의 새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8월 14일 순천 금당절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명선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재가불자 3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10여년 금당절 중창불사를 회향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명선 스님은 법어에서 “주지스

번뇌 비우고 지혜 채우자

호남지역 경전·문화 등 ‘가을강좌’ 풍성

무더위로 영근 곡식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때, 솔솔 부는 시원한 바람에 마음이 절로 생각나는 계절이 시작됐다. 마음가는대로 불교서적 한두 권 읽으며 독자를 자처했다면 올가을 지역 불교대학 등을 찾아 체계적인 부처님 법 공부할 해보는 것은 어떨까?

호남에서는 광주전남지역 5곳(제가 화엄학림, 광주불교대학, 광주불교문화대학, 강진불교대학, 무주불교대학)과 전북지역 5곳(무주불교대학, 남원불교대학, 전북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화엄불교대학) 불교대학이 강좌를 열고 불자들을 기다린다.

광주불교문화대학은 3개 학과(불교학과, 한문학과, 성보문화해설사)를 별도 운영한다. 성보해설사 과정은 지역문화재 전문단체인 남도불교문화연구회와 공동 진행하며, 광주전남지역 문화재 전문위원회와 대학교수진이 강의한다. 특히 졸업자는 지역 불교문화재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다.

광주불교대학·원(학장 혜향)도 대학과 대학원이 각각 9월 3일과 1일이 개강한다. 재학생 및 졸업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불교교리’ ‘불교문화’ ‘포교방법론’ ‘아미타경’ ‘경전연구’ 강좌 등이 준비됐다.

전북지역에서는 8월 27일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 개강을 시작으로, 화엄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등이 강좌를 연다.

9월 1일 개강하는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은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불자들을 위한 강좌를 연다.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은 9월 3일부터 매주 수·목 강의한다. 9월에는 한담 스님과 일원 스님이 각각 <천수경>과 ‘불교문

광주 전남지역

제가 화엄학림(학장 정원재)은 9월 2일부터 ‘근본불교사상’과 <화엄경> 강좌를 개최한다. 각각 7회씩 연속해 열리는 강좌는 법인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강강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원장)이 강의한다. 10월 중에는 태극 불교 성지 순례도 계획 중이다.

강진불교대학(학장 여연)은 8월 20일부터 <천수경> 강좌를 시작했다. 매주 1회씩 열리는 강좌는 12월 17일 종강법회 전까지 <천수경>, 기도수행법, 참선수행법 강의와 성지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광주불교문화대학·원(학장 혜향)은 대학과 대학원으로 나눠 학기를 시작한다. 대학은 9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화, 목으로 나눠 ‘차 문화’(여연 스님), ‘한국 불교사’(정의행 법사), ‘천수경’

전북지역

전북지역에서는 8월 27일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 개강을 시작으로, 화엄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등이 강좌를 연다.

9월 1일 개강하는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은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불자들을 위한 강좌를 연다.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은 9월 3일부터 매주 수·목 강의한다. 9월에는 한담 스님과 일원 스님이 각각 <천수경>과 ‘불교문

호남지역

호남지역에서는 8월 27일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 개강을 시작으로, 화엄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등이 강좌를 연다.

9월 1일 개강하는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은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불자들을 위한 강좌를 연다.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은 9월 3일부터 매주 수·목 강의한다. 9월에는 한담 스님과 일원 스님이 각각 <천수경>과 ‘불교문

호남지역에서는 8월 27일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 개강을 시작으로, 화엄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등이 강좌를 연다.

9월 1일 개강하는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은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불자들을 위한 강좌를 연다.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은 9월 3일부터 매주 수·목 강의한다. 9월에는 한담 스님과 일원 스님이 각각 <천수경>과 ‘불교문

가을에 개강하는 불교대학

제가 화엄학림	(062)234-2732
광주불교문화대학	(062)228-9098
광주불교대학	(062)375-7633
강진불교대학	(061)432-0837
무주사불교대학	(062)383-0107
무주불교대학	(063)322-6162
남원불교대학	(063)632-6966
전북불교대학	(063)226-7878
이리불교대학	(063)854-1578
화엄불교대학	(063)277-3497

순천 금당절 중창불사 회향법회 봉행

순천 도심 속에 자리한 금당절(주지 범임)이 현대인들을 위한 도심포교 도량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8월 14일 순천 금당절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명선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재가불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여년 금당절 중창불사를 회향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명선 스님은 법어에서 “주지스

남과 신도들의 정성이 모여져 부처님 도량을 가꾸게 됐다. 지역민들의 큰 사표가 되는 사찰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범임 스님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10여년간 많은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도심포교도량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지역민들과 함께 생

활 불교를 실천하는 도량으로 가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창불사를 마친 금당절은 연면적 500㎡ 규모 현대식 건물에 1층 선당, 2층 법당, 3층 대웅요사채로 마련됐다.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운전불자회를 비롯한 직장불교법회까지 다양한 법회와 다도, 요가, 명상 교실 등이 열려 순천지역 불교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이준엽 원장

불교문화운동의 ‘대부’

기승 속에 언제나 “호남불교의 활성화”라는 화두를 참구하며 수행하는 이가 있다. 호남불교문화원 이준엽 원장이다.

“우리 마음속에 녹아있는 ‘불교문화 DNA’에 자극 주는 일을 하겠다. 할아버지 그 유훈 할머니, 또 그 유훈 선조님들이 염원하던 ‘불교정토’를 이루는 길라잡이가 되겠다.”

이준엽 원장의 말에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묻어있다. 실제로 그는 호남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활동가이다.

한국불교 재도약은 호남불교 활성화로 가능하다는 이준엽 원장은 호남불교를 ‘잡자’는 사자’에 비유한다. 언젠가 깨어나 한국불교의 주역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호남불교문화원에서는 몇가지 실험적인 호남불교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중이다. 얼마 전 성황리에 끝난 남도 4교구본사 체제 템플스테이인 ‘남도 선지식을 찾아서’가 대표적이다. 또한 차(茶) 체험, 호남불교문화 답사 등 서울, 경기, 경상도 등 타지역 불자들이 호



“호남불교 활성화로 한국불교 재도약”

전북 남원이 고향인 이 원장은 불교학개회와 대학생불교연합회 전북지부장을 거쳐 1989년 ‘대중불교’를 시작으로 언론에 몸담기 시작했다. 이후 ‘법보신문’ ‘현대불교’ 등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전북불교대학 사무처장과 제주불교 편집국장 등 이준엽 원장의 이력에는 불교언론인이자 호남지역 불교 전문가다운 면모가 보인다.

“한국불교의 정진은 호남불교에 있습니다. 진묵, 경허, 만공, 용성, 탄허, 구산 스님 등 수많은 큰스님을 배출한 부처님 땅이 호남이지요. 부설거사 일가족이 깨침을 얻은 재가불교 신실이기도 합니다.”

남불교를 체험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고 한다. 때문에 “호남불교의 문화에 대한 긍금증은 이준엽 원장을 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도 들린다.

분서경유 때 불서(佛書)에 불붙인 병사였을 거라던 불교 출판인 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려 준 이원장은 자신도 전생에 불교를 해코지 했나 보다고 웃는다.

“그래도 부처님 심부름하며 살 수 있어 책 쓴다는 업보라 생각합니다. 호남불교를 위해서는 일이라면 마냥 신바람 나기 때문입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로 최저가격으로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화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장애,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환, 신진대사 촉진, 비위하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경력강화(초무중,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방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우유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존경하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상당(자연산삼, 장뇌산삼)
- 100년, 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당**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필 (본식 51160-150)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9월 5일 금요일반 • 개강시간: 오후 1시

▶ 교육 기간: 6주(24시간) ▶ 모집 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60만원 ▶ 대상: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 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타라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